

양심의 자유 보호...대체복무 길 열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의미

현행 병역법 체계는 위헌

2020년부터 대체복무 시행

현재의 이번 판결은 '현행 병역법 체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했고 사실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전제로 한 합헌 결정이어서 진일보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곧바로 합리적인 대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현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현재 판결의 골자는 대체복무제가 규정

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현재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현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은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법상 병역 종류가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는 반면 대체복무제는 규정하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데다 엄격한 심사를 하면 양심을 빙자한 병역회

피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체복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와 엄격한 사후관리 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해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관련성과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비·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하고 이 조항을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효력을 없앨 경우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했다.

개헌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국방부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알림'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 현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대한 기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현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방부는 이들이 병역을 대신해 복무하는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10년 취업 제한은 위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10년간 체육시설이나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 같은 아동복지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이들로, 관련 아동복지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아동복지법 조항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체육시설이나 초·중·고교 육법상의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전력만으로도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이는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까지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건 지나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그러면서 "10년이라는 현행 취업 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원이 대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관계자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제도에 관한 최종 결정"이라며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화전당 찾은 전국 대학생 방문단 28일 전국 대학생 50여명이 아시아문화전당 광장에서 전라도 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있다. 이들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계기로 광주·전남지역을 찾았다. /최현배 기자 choi@

원안위, 부적합 부품 사용 한수원에 사상 최대 과징금

한빛원전 3·4·5·6호기 등

13개 원전 기준 미달 부품 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빛원전 등에 기준 미달 부품을 설치한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과징금 5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1년 원안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원안위는 "제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안전등급밸브를 한빛원전 3·4·5·6호기 등 가동원전에 설치한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진행한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서에서 증기를 발송하는 밸브(주중기대기방출밸브)가 일부 시험(모의 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의 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 밸브는 정전

등으로 터빈이 정지되는 경우 증기발생기 속 증기를 대기로 배출시켜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원안위는 원전 24기로 확대 점검한 결과, 한빛 3~6호기 등 총 13개 원전에서도 유사한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다. 한수원이 제작업체에 밸브 제작을 맡길 때 구매규격을 준수요건에 맞지 않게 작성했고 제품 인수과정에서 품질검사 등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희 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1	달뜨기	20:36
해질	19:51	달짐	06:04

관측근접 장마철
후답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	차차흐려져비	22/30	보성	흐림	21/27
목포	흐림	22/28	순천	흐림	22/28
여수	비온뒤 갬	22/25	영광	흐림	22/29
나주	흐림	22/30	진도	흐림	22/28
완도	흐림	22/28	전주	구름많음	23/31
구례	차차흐려져비	21/30	군산	구름많음	22/28
강진	흐림	22/28	남원	구름많음	22/30
해남	흐림	22/28	흑산도	흐림	20/26
장성	흐림	22/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5	북서~북	0.5~1.0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0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앞바다(서)	남~남서	1.5~2.5	남~남서	1.0~2.0

◇생활지수

경고	보통	좋음
☀️	☀️	☀️
☀️	☀️	☀️
☀️	☀️	☀️
☀️	☀️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8:21	03:07
	20:21	14:52
여수	03:46	09:34
	15:32	22:15

◇주간 날씨

30(토)	7/1(일)	2(월)	3(화)	4(수)	5(목)	6(금)
☁️	☁️	☁️	☁️	☁️	☁️	☁️
23/27	23/28	23/28	23/29	23/29	23/28	23/29

"영화 '허스토리' 역사적 사실 왜곡 심각"

'시민모임'... "근로정신대 할머니 전체 성노예 표현"

'관부재판'(關釜裁判)을 소재로 한 영화 '허스토리'(27일 개봉)가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 전체를 일본군 성노예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부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0명이 1992년 12월 25일 아미쿠치 지방재판소 사모노세키 지부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스토리가 예술작품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정신대에 대한 역사적 사실 왜곡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리한 후지코시(不二越) 회사에서 근로정신대로 강제노역 중 일행 15명이 외출 중 트럭에 실려가 군인에 성폭행을 당한 뒤 결국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것으로 표현돼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실제 후지코시로 동원됐다가 나중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된 사례는 고(故) 강덕경 할머니가 유일하다.

영화 엔딩 컷에서도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가 별세함으로써, 관부재판에 참여했던 원고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표현했는데, 당시 함께 원고로 참여했던 양금덕(90) 할머니가 여전히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 중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목포·여수·순천·광양시 시내버스노사 임협 극적 타결

목포·여수·순천·광양 시내버스노사가 27일 밤 11시30분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28일 목포·여수·순천시에 따르면 이 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27일 밤 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타협안을

찾았다. 이에 따라 이날 새벽 5시로 예정됐던 파업이 철회됐다. 광양 시내버스노조는 27일 오후 목포 등 3개 시 노조의 결정에 따라기로 하고 파업 계획을 유보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선배.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동배.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배.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배.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